Vol. 19 | 2022 AUTUMN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디지털 러닝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디지털 교육 철학을 준비할 때

Class Know-How

아이들 마음에 우리말을 담는 한글날 수업, 이렇게 해보세요
영화보다 재미있는 한글 이야기, 듣다 보면 귀에 '쏙'

Educommerce

'티처몰 플로깅 세트' 들고 동네 쓰레기 '줍줍'

Interview&People

선생님, 오늘부터 '다했니'로 째깍째깍 정시퇴근하세요!

Teacher Life

달리면 생활체력·문제해결력·자신감이 '쑥쑥'
싱가포르에 한국형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제시하다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올해도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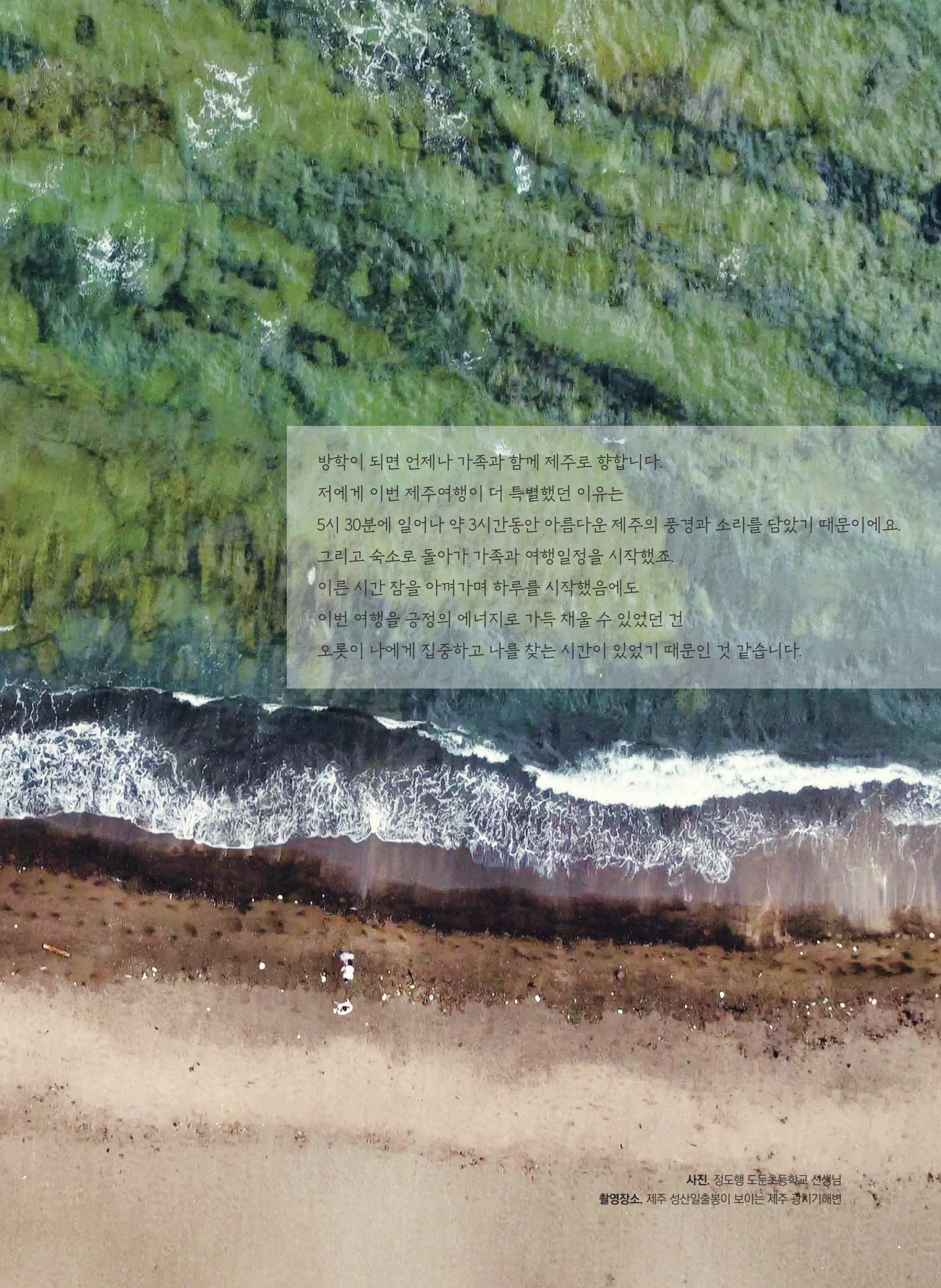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2년 티처빌 회원등급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언제나 가족과 함께 제주로 향합니다.
저에게 이번 제주여행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5시 30분에 일어나 약 3시간동안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과 소리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 가족과 여행일정을 시작했죠.
이른 시간 잠을 아껴가며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이번 여행을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찾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진. 정도행 도둔초등학교 선생님
촬영장소. 제주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제주 광치기해변

CONTENTS

Vol.19 | 2022 AUTUMN

Zoom in Focus

06 디지털 러닝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디지털 교육 철학을 준비할 때 •김지혜

Class Know-How

10 아이들 마음에 우리말을 담는 한글날 수업, 이렇게 해보세요 •박동수

12 영화보다 재미있는 한글 이야기, 듣다 보면 귀에 '쏙' •황지은

16 친구들과 대화하고, 표현하고, 함께할 기회 만들어요 •김상현

20 더 나은 수업, 더 큰 성장을 위해 도전해보세요 •장주희

Educommerce

24 '티처몰 플로깅 세트' 들고 동네 쓰레기 '줍줍' •에듀커머스사업부

Hot EduTech

26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김종헌

Interview & People

30 선생님, 오늘부터 '다했니'로 째깍째깍 정시퇴근하세요! •최지원

34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식 •천경호

발행처 테크빌교육㈜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 · 6 · 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2년 9월 16일 통권 제19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e.com

디자인·인쇄 제이디자인
T. 02-2135-4047

Teacherville News

38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42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직무연수 서비스 '티스콘' 출시 •티처빌사업부

44 티처빌, KT 'AI 코디니'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직무연수 •티처빌사업부

46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48 신규과정

Teacher Life

50 달리면 생활체력·문제해결·자신감이 '쑥쑥' •정규하

54 싱가포르에 한국형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제시하다 •김성현

Travel Information

58 10월 황금연휴 떠나자, 맛과 멋의 고장 거제·통영으로 •테크빌교육 홍보팀

Book

60 하루 한장 초성퀴즈 초등 속담쓰기
하루 한장 OX퀴즈 초등 맞춤법 쓰기/
실전! 고교학점제 따라잡기/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수업

Cartoon

62 헐툰 Heartoon •이병용

에듀테크 박람회 미국 'ISTE 2022' 현장에서

디지털 러닝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디지털 교육 철학을 준비할 때

글.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

영국의 베트쇼(Bettshow)와 함께 전 세계 K-12(유치원부터 고교 졸업까지 교육제도) 교육 박람회로 손꼽히는 미국 'ISTE 2022'가 지난 6월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전 세계 에듀테크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K-12 교육에 인사이트를 얻고자 김지혜 티처빌사업부문 대표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다.

교육과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다, ISTE

전 세계 K-12 교육 박람회 중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박람회는 영국의 베트쇼(Bettshow), 미국의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중동의 GESS(Global Educational Supplies & Solutions) 3가지다. 'ISTE 2022'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해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Bettshow와 견줘도 손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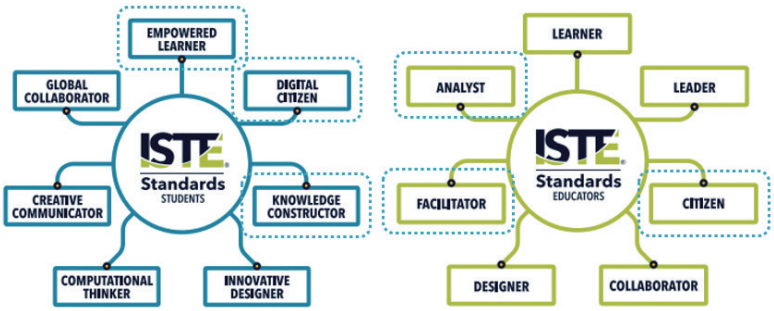
Bettshow가 영국과 유럽의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박람회라면 ISTE는 미국 K-12 교사와 에듀테크 기업 간의 교육 박람회다. ISTE, 즉 국제교육기술협회는 비영리 기구다. 1979년 설립 이후 43년간 전 세계 교육자들과 교육에 효과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학습모델과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서적 배포 및 포럼 개최 등의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에 교육재정의 약 92%를 배정하고, 교육에 관한 입법과 재정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연방정부는 주별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교육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지원한다(참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특별보고서 2021년). 주정부는 주요 정책을 제외하고서는 예산과 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모두 학교에 위임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수가 1만 1,710개라면 미국의 K-12 학교 수는 13만 930개로 충분한 예산과 함께 내수 시장만으로도 세계적인 규모의 에듀테크 교육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수준이다.

ISTE Standards – 학생·교육자·리더

ISTE는 미국컴퓨팅학회(ACM)와 교육과 기술에 대한 개념과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인 'ISTE 표준'을 학생·교육자·교육 리더용 표준 로드맵으로 제공하고 있다. 에듀케이터(Educators)는 티처(Teacher)와 테크 코치(Tech Coach)로 나뉘는데 테크 코치는 교사지만 수업을 맡지 않고 에듀테크 기술과 교육을 연구하고 교사와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석교사와 비슷한데 에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연구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수석교사를 이원화해 수석교사와 테크 수석교사를 나눠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

미국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교육에서 시작한다. 'Students Standards'에



이미지 출처는 iste.org / ISTE Standards.

약력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
•前 캐럿글로벌 커리어컨설턴트

서의 핵심은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디지털 시티즌(Digital Citizen)도 'ISTE 2022'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제시됐다. 덧붙여 디지털 시대의 학생은 지식생산자로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디지털 결과물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Educators Standards'에서는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즉 촉진자'라고 여긴다. 4일간의 ISTE 2022 콘퍼런스에서도 '티칭'(Teaching)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강조했다. 또 하나 특별했던 점은 애널리스트(Analyst)로 교육자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표준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듀테크와 미래교육 – 학교와 민간 주도의 에듀테크 생태계

ISTE 2022는 25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함께 37개 주제의 200개 이상의 세션이 참여했다. 이 세션은 전시회에 참가한 400개 에듀테크 기업들의 솔루션과도 연결됐다.

200여 개의 콘퍼런스 주제는 모두 교육에 중심을 두고 해당 교육의 주제를 각 에듀테크 기술로 어떻게 더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이 되도록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교육이 그 중심을 이루며, 에듀테크 기술로 교육을 지원하는 구조로 200여 개의 세션이 움직였다. 교과에 상관없이 교육 철학 및 교육과정 전반의 주제를 기반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어떻게 교육을 지원하는지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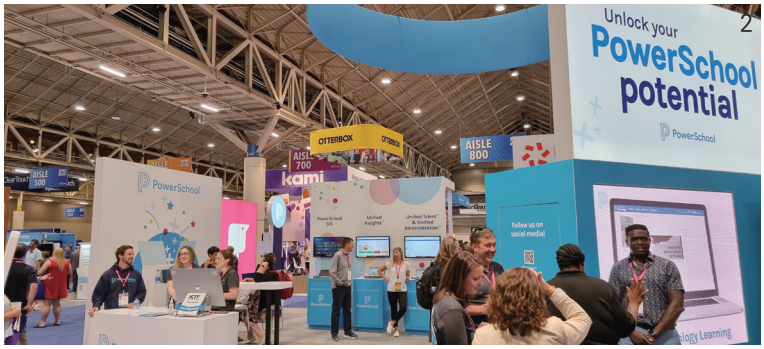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는 iste.org / ISTE 2022.

ISTE CEO 리처드 쿨라타(Richard Culatta)는 기조 강연에서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원격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기술을 배우고 콘텐츠를 전달하기에도 바빴다"라며 "이제는 효과적인 디지털 러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콘텐츠를 통해 사람을 연결하고 디지털 교육 철학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 에듀테크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ift 1 :	Emergency Remote Learning	Effective Digital Learning
Shift 2 :	Online Safety	Digital Wellbeing
Shift 3 :	Presenting Content	Connecting People
Shift 4 :	Tech Skills	Digital Pedagogy

출처는 ISTE 22 - 리처드 쿨라타 CEO 강연 중.

학교의 자율적 요구와 에듀테크 예산으로 에듀테크 교육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다양한 학교와 교사 지원 솔루션들이 존재한다. 'ISTE 2022'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미국은 이미 학교에 데이터(data)가 쌓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



라는 데이터가 부족한데도 AI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AI보다는 학생들의 개인화를 위한 퍼스널 러닝(Personal Learning)에 대해 말한다. 많은 제품이 학교의 니즈에 의해 이미 통합돼 상호 운용되며 서로의 데이터가 연결되고 호환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데이터 애널리스트(Data Analyst) 솔루션을 통해 지역(District)과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각종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러닝 애널리스트(Learning Analytics)를 활용한다. 우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K-에듀통합플랫폼이 민간부문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이정동 교수의 저서 『최초의 질문』에는 우리나라 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저서에서는 202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으며,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할 때라고 말한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 직접 들어가 민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가 정신과 조달력(구매력)을 기반으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인내 자본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정부는 에듀테크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교육으로 한 발 나서기

영국과 미국의 에듀테크 시장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최초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생태계부터 고민해봐야 한다. 정부가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로 예산을 할당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교가 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더 빠르고 다양한 교육 솔루션이 교사의 니즈에 대응하고 때로는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듀테크 기술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교과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융합·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 정책 및 지원을 활성화해 미래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에듀테크 박람회가 개최돼 수많은 국가의 교육자들이 방문하기를 기대한다.

1. ISTE CEO 강연자 발표 화면.
2. ISTE 전시회장 사진.
3. 티처스페이티처스와의 회의 후 기념 촬영.

한글날 계기교육 초등편

아이들 마음에 우리말을 담는 한글날 수업, 이렇게 해보세요

글. **박동수** 와우초등학교 선생님

한글날이 올해로 576돌을 맞았다. 올해는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돼 사흘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모처럼의 연휴에 여행도 좋지만,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활동을 통해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 교실에서부터 새롭고 재미있는 한글날 계기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글 교육 초등편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와우스쿨〉 채널을 운영하는 박동수입니다. '쌤동네'에서 교사크리에이터로 교육 콘텐츠를 시기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계기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흥미에 맞는 최신 교육 자료를 찾기가 어렵죠?
쌤동네에서 〈와우스쿨〉과 '계기교육명'을 검색해보세요. 10월 9일 한글날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수업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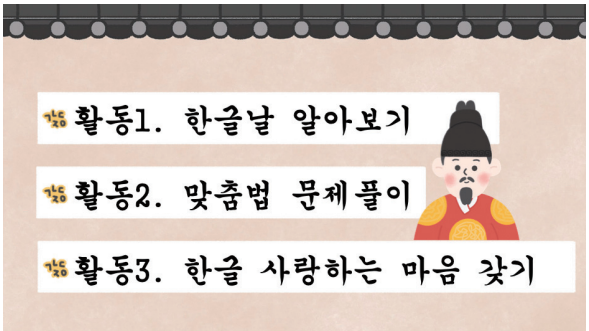
한글날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세종대왕, 한글, 훈민정음….
아이들과도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 평소에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계기교육이라 해서 선생님이 주제를 무겁게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고 헷갈립니다.

한글날 그 너머로

한글날에 대한 평소의 경험과 생각을 그물망으로 정리합니다.
태극기를 달아본 경험, 도서관 한글날 행사에 참여한 일,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 등 학급 아이들의 평소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글날에 대한 이해의

약력 박동수

- 와우초등학교 교사
- 네이버 인플루언서
- 유튜브 〈와우스쿨〉 채널 운영



한글날 파워포인트 수업 자료.

폭을 자극하는 것이 계기교육 수업의 첫 시작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글날

한글날 이야기로 흥미가 충분히 생겼다면,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의 허들을 조금 높여줘야 합니다(바로 계기교육을 매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한글날 퀴즈 어떠세요? 딱 7가지 문제를 파워포인트에 담아보았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수업 자료 준비하기

파워포인트 수업 자료

삼각책 만들기

창의적 단어 만들기

계기교육 수업 자료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학년군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1~3학년에 친구들이 좋아할 자료와 4~6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 확인해 보세요.

[저학년용 수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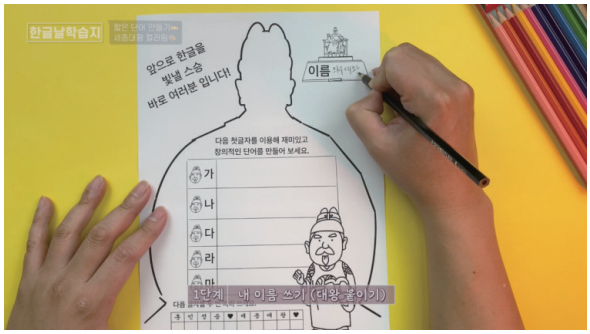
삼각책을 만들어 한글날 계기교육 수업을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활동.

[고학년용 수업 자료]

밈과 언어유희를 즐기는 고학년에 맞는 한글 단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학습지 활동.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계기교육 자료로 아이들이 제멋대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올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한글날이 됐으면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제멋대로의 힘'을 키우는 와우스쿨 한글날 수업 자료와 함께하세요. Ⓣ

한글날 삼각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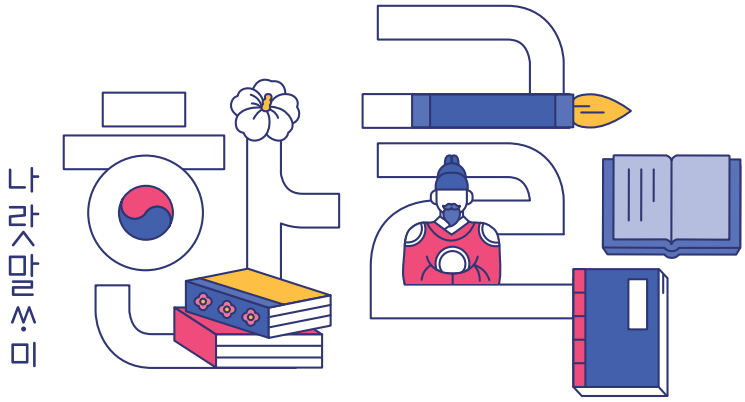


한글 이용해 창의적 단어 만들기.

한글날 계기교육 중·고등편

영화보다 재미있는 한글 이야기, 듣다 보면 귀에 '쏙'

글. 황지은 인천 세원고등학교 선생님



한글은 세계문자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세계 제일의 문자다. 하지만 한글의 역사와 우수성을 되돌아보는 교육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한글날을 맞이해서라도 한글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회성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한글날 계기교육을 소개한다.

"전국에서 단 28명"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 100점을 받은 학생의 숫자입니다. 역대 가장 어려웠던 수능으로 기록됐습니다. 너무도 어려웠던 시험 탓에 국어 교과를 더 어렵고 멀게 느끼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보통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 교과를 처음에는 어려운 과목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국어의 벽'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 국어 세부 영역 중 가장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국어의 역사'

입니다. 학부 때 중세국어문법론을 들으며 '이렇게 따분하고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지?'라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어 교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어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도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면서 내용 자체도 어려워지고, 수능에서 다루는 국어 역사 부분이 어렵게 등장하면서 점점 멀게만 느끼게 됩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언어와 매체' [35~36] 지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ᄋᆡ'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
> 너븨(넙- + -의)도 ᄀᆞᄐᆡ ᄒᆞ고 [넓이도 같이 하고]
> 노ᄑᆡ(높- + -ᄋᆡ) 다ᄉᆞᆺ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전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내용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의 자긍심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우리 국어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언어 정보 속에서 정확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생각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국어 생활을 위해 그 뿌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지켜가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높여주기 위해 한글날을 전후해 아이들과 함께했던 수업을 소개합니다.

약력 황지은

- 인천 세원고등학교 교사
- 고교학점제 추진 선도 교원
- EBS 콘텐츠 검토위원
- 前) KEDI 국어교과 검토 및 자문위원
- 교육부 문해 과정 중등 교과서 집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야기

2학년 학생과 함께한 첫 번째 수업은 이야기를 전해주듯이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간략히 소개해주고 『훈민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해례본.

정음』의 설명서인 '언해본'과 '해례본'의 차이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한글의 창제 취지와 원칙을 담아 많은 책에 수록된 언해본과 달리 제자 원리를 세밀하게 담고 있는 해례본은 간행 자체가 많이 되지 않았음을 쉽게 이해했습니다. 해례본이 전승되지 않아 우리의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 이어서 일제강점기에 핍박받았던 한글과 한글의 탄생을 조롱하기 위해 날조했던 일본의 언어학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전해줬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 아이들은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영화같이 극적으로 찾아낸 해례본,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한글 창제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는 여러 차례 탄성과 박수도 나왔습니다. 문살을 보고 만들었다는 일본의 억측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를 통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려고 해례본과 관련한 놀라운 사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예고로 알려주자 궁금해 못 참겠다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빼앗긴 한글 되찾기

한글날 맞이 특별수업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 전부터 오늘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성화였습니다.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간송본'과 '상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 화면과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해례를 되돌려 가져온 간송 전형필 선생의 노력, 그리고 국가에 기증한 내용을 우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소중하게 남아 있는 간송본은 1994년 국보로 지정됐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음을 알려주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8년 또 다른 해례인 상주본이 등장한 사건을 이야기했

> 언어 환경 역시
> 급변하고 있는
> 현실 속에서
> 우리 말과
> 글을 사랑하고
> 지켜가려는 노력은
> 더욱 중요합니다.

습니다. 배○○ 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각 주에 다른 내용이 별도로 표기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더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상주본을 일부만 공개하고,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아이들은 분개했습니다.

이러한 두 이야기를 해준 다음, 구체적인 실천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해갔습니다. 아이들은 법률적 조치, 캠페인 등의 방법을 제안했고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항의 편지 쓰기 활동을 정했습니다. 단,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해당 시간에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쓰지 못한 경우에는 과제로 쓰도록 했습니다. 배○○ 씨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쓴 편지의 내용을 나누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 수업과의 변주

한글날 맞이 특별수업 마지막 시간은 역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미리 역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문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저와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대 문명의 태동과 문자의 관계에 관해 설명했고, 저는 설형문자와 상형문자의 운용 원리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어느 한쪽의 내용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부분을 역사와 함께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자와 권력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중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당시 이를 반대했던 양반들의 입장에 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보와 문화가 넘나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우리 국어의 역사와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며 깊이 몰입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아이들의 소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한글의 뿌리를 알고 좀 더 나은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한글날,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

초등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 체험기

친구들과 대화하고, 표현하고, 함께할 기회 만들어요

글. 김상현 수원 세류초등학교 선생님

다문화특별학급 현장체험학습(아쿠아리움 현장체험).

다문화주간 세계 여러나라 국기 알기(1학년 1반).

대한민국이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인구의 4%이고,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이 넘어 전체 학생의 3%다. 이제 학교에서부터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에게도 다문화 교육은 여전히 낯설다. 다문화 교육,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을까? 수원 세류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 중인 김상현 선생님의 경험담에서 그 길을 찾아보자.

다문화 특별학급? 그런 게 있어?

초등교사들에게도 다문화 특별학급은 생소하다.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 학교 이야기를 하면 백이면 백 이에 관해 물어본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에 대해 아는 선생님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발령과 함께 세류초등학교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교감 선생님께서 이 업무를 내게 제안하자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함께 근무하던 부장님들께 조언을 구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게 있어?”였다. 낯설고 흔치 않은 교실이었다. 마치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내게는 여러 국적으로 나뉘어 있는 아이들의 출석부와 교육청 그리고 시에서 지

원해주는 예산이 쥐어져 있었다. 허겁지겁 전임자와 교무부장님께 여러 설명과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그려지지 않았다. 시·도 장학사께도 도움을 요청했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특별학급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었다. 그렇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다문화 특별학급 아이들과의 생활이 시작됐다.

난 무엇을 가르쳐야 하지? 아니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등교하는 첫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특별학급의 시간표와 학부모님께 전달할 안내장을 준비했다. 이중언어 강사님께 요청해 영어와 중국어 버전의 안내장도 준비했다. 안내장을 배부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실에 방문했다. 그때 나와 마주한 아이는 아주 당연하게 중국어로 이야기를 건넸다.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떠올라 몹시 당황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막상 잘 모르는 외국어가 불쑥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안내해줘야 할까? 천천히 설명해주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아이들은 원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특별학급으로 왔다. 깔끔하고 따뜻한 첫 만남을 위해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미소를 준비했다. 2학년, 3~4학년, 6학년 순으로 아이들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라며 밝게 인사했다. 아이들을 보니 긴장이 다소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아이들은 한국어로 하는 질문이나 안내를 부담스러워하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며 외국에서 제대로 말을 못 해 낑낑거렸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 답답함이란….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졌다. 아니 가르칠 순 있을까 걱정됐다.

한글을 읽고 써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A야,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 좀 하니?" 한글 읽기 쓰기를 무척 잘하는 6학년 제자에게 물었다.

"전혀요. 1학년 때부터 교실에선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아이는 그 상황이 당연한 듯 대답했다. 그 대답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같은 반인데도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그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놀란 사실은 특별학급 대다수 아이가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무척 잘하지만, 막상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의

약력 김상현

- 수원 세류초등학교 다문화특별학급 담임교사
- 교육콘텐츠제작소 몽당분필 창단대표
- 교사 뮤지컬창작모임 PD(기획)
- 교육게임제작모임 리:플레이게임즈 리더

사를 전달하고 감정과 생각을 나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성원들과의 친밀감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얻는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습득하고 느끼는 부분이다. 아이들이 학급에서 더욱 깊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를 안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과 대화했는지 경험을 떠올려보았다. 가만히 짚어보니 내가 영어를 쓰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거나 도와준다는 믿음과 환경 그리고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환경과 필요성을 제공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다문화 특별학급 예산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새롭게 다가왔고,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목표. 대화하고 싶은 교실 환경을 만들자.
두 번째 목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기회를 만들자.
세 번째 목표. 친구들과 함께할 활동(기회)를 만들자.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교실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1

2

대화하고 싶은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아이들이 특별학급에 들어섰을 때 좀 더 따뜻한 교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마침 교실은 나무 재질로 된 마루였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 장점을 고려해 맨발 교실을 운영했다. 또 책상과 의자를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만 배치했다. 맨바닥은 예상보다 더 포근했고, 교실은 한층 넓어지고 깔끔해졌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신발장도 챙겨주셨다.
독특하게도 이 교실 뒤편은 암벽등반용 벽으로 돼 있었는데, 이곳은 아이들이 활동하고 공부한 내용을 저장하는 곳으로 쓰기로 했다. 공부한 내용을 계속 보면서 수정하기도 하고 털실로 연결하기도 했다. 자신의 작품이 계속 쌓여가면서, 수업시간에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야기할 것들이 점차 늘어났다.

교육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초등교사로서 경력이 쌓이면서 느끼는 것인데, 삶은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 학급에서 제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행복했다. 무엇인

가에 몰입해 활동할 때 그때만큼 아이들이 자신에게 솔직한 적이 있을까? 특별학급 아이들은 개성이 다 달랐다. 놀라운 점은 이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V-LOG로 남겨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수줍어하면서도 함께했던 교육 활동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다.

로고송 출품부터 한글 동화 창작까지 표현의 기회 만들기

얼마 전 2학년 학생이 교실에 있는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자기 딴엔 좋은 소리를 찾아내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동의를 구하고 그 멜로디를 녹화해 안전 로고송 대회에 출품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결과도 좋았고, 주변에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줬다. 학생도 자신감이 붙었고, 그 모습에 나도 뿌듯했다. 최근 다문화 특별학급 아이들은 한글로 동화를 만들고 있다. 부족하지만 한국어로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앞으로도 표현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별학급이라고 특별한 아이들이 있는 것일까

아이들은 모두 교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와중에 자존감을 얻고 준거집단에 소속감을 지니게 되는 아이들은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또 주체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어쩌면 그 속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고 1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다문화 아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다문화 아이들도 그 안에 자존감을 획득할 수도, 준거집단을 가질 수도, 소속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사회이지 않을까?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두렵다. 그게 우리를 다른 존재라고 선을 긋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아이들과 지내며 활동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내가 일반학급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화하고, 표현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감정을 나누고, 배려하는 모든 활동은 특별학급 이전에도 해왔던 활동들 아닌가? Ⓣ

1. 다문화특별학급 한국문화 체험학습(송편만들기 체험).
2. 다문화주간 세계 여러나라 음식 만들기(5학년 1반).
3. 다문화특별반 한국어말하기 축제(2학년 이무경 학생).
4. 다문화특별학급 진로찾기 수업.
5. 다문화특별학급 진로체험 학습(플라워박스 만들기).

특별학급이라서 특별하게 대해야 할 것 같은 그 위화감은 어느새 사라졌다.
모두 똑같이 단지 배우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연구대회, 교사로서 성장의 터닝포인트

더 나은 수업, 더 큰 성장을 위해 도전해보세요

글. 장주희 전라북도교육청 선생님

교사라면 한 번쯤 '연구대회' 도전을 고민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도 만만찮은데 바쁜 시간을 쪼개 연구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주희 선생님은 2017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에 참가해 1등급을 받고 최근 교사교육과정 1정 연수 강사가 됐다. 장 선생님은 지금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으로 연구대회 준비에 몰두했던 시간을 꼽으며, 많은 선생님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연구대회에 관한 오해

교사에게 연구대회는 인사이동과 승진을 위한 수단이 분명하다. 대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연구대회' 대부분이 개인의 결과물에 점수와 순위를 부여하

는 경쟁이며, 이를 통한 개인의 성취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결과가 인사 점수, 특히 승진 점수에 크게 반영된다는 점은 연구대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주변의 누군가 연구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승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지레 짐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준비하는 교사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보다 개인적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사로 좋지 않게 보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대회가 부여하는 점수가 곧 대회의 본질은 아니다. 교사는 연구대회를 통해 점수 몇 점으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회의 본질

연구대회는 대회 특성별로 연구 주제와 방법, 시기 등이 매우 다양하다. 개인의 단기간 산출물을 평가하는 대회에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 학교 단위로 참여하는 연구대회까지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연구대회일지라도 사실상 그 본질은 모두 같다. 교육부 훈령 제403조에 따르면 모든 연구대회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교교육활동 적용, 교육자료 개발, 교육행정 제도 개선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발굴·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연구대회의 기능은 '개선, 적용, 개발, 발굴, 공유'의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이는 교사의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수업의 질 개선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연구대회를 통한 성장

나는 2017년 첫 연구대회였던 진로교육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에 참여해 전국 1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연구대회를 통해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연구대회의 순기능과 이를 뛰어 넘는 값진 성장을 경험했다. 처음 대회에 도전한 이유는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싶은 교사로서의 성장 욕구 때문이었다.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건강한 사회적 자립의 기반'을 아이들의 삶에 녹여 생동감 넘치고 전문성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진로교육과 2015개정 교육과정의 역량을 융합해 새로운 진로교육 모델로 개발했다. 이렇게 새롭게 발굴한 교육방식은 연구 보고서와 추후 다양한 강의 및 콘텐츠를 통해 비슷한 철학이나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공유·재생산돼 교육 현장에 적용됐다.

무엇보다 연구대회를 준비하며 교사로서 교육관을 정립했던 시간, 현재의

약력 장주희

•전라북도교육청 교사
•2017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인분과 1등급

교육 트렌드를 파악하고 수업에 녹이고자했던 시도, 교육과정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부했던 노력, 연간 계획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해본 경험, 성취기준을 활용해 교·수·평이 일체화된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작해본 노하우 등은 결과적으로 교사전문성 향상에 큰 자양분이 됐다. 그렇게 연구대회는 작게는 내 수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여주었고, 나아가 교사로서 긍정적 자아효능감을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로 성장해 나가는 보람과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다.

>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한 번쯤 연구대회에 도전해보면 좋겠다.

#연구대회가 바꾸어준 삶

첫 연구대회 후 5년이 지난 지금, 연구대회는 교사로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음을 실감한다. 작은 학교에서 나의 학급만 꾸려나갔던 나는 연구대회 다음 해 신규 혁신학교 주무를 맡게 됐다. 학급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다시 설계해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연구대회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오지 않을 행운이었다. 그 뒤 3년간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주무와 지역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연구회 회장 등의 경험을 거쳐 올해 초에는 교사교육과정을 주제로 1정 연수 강사로 동료 교사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덕분이다. 이렇게 교실을 넘어 학교로, 학교를 넘어 학교 밖의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교사로서 내 성장을 실감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장, 실천과 성찰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터닝포인트

교사로서 내 삶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연구대회였다. 단지 더 나은 수업을 하고 싶어 시작했던 작은 도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가져왔다. 그 놀라운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감히 이야기 해본다. 단지 승진점수 몇 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한 번쯤 연구대회에 도전해보면 좋겠다고 말이다. 일단 시작만 한다면 결과와 점수를 떠나 준비와 고민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교사로서의 수업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다. 어쩌다 운이 좋다면 무심코 참여한 하나의 연구대회가 내 삶 전반을 바꿔놓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한 번쯤 도전하고 만들어보자, 내 교직 인생의 터닝포인트! Ⓣ

2022년

2학기 필요 연수만 모아 리부팅

새학기 연수 더보기 >

2학기는 더 새롭게! 학급/교과 운영

2학점 ~~75,000원~~ 60,000원

2학점 ~~75,000원~~ 60,000원

2학점 ~~60,000원~~ 48,000원

코로나로 무너진 기초학력, 바로잡기

1학점 ~~45,000원~~ 36,000원

1학점 ~~45,000원~~ 36,000원

1학점 ~~45,000원~~ 36,000원

진로/진학 지도, 이것부터 시작하자

1학점 ~~45,000원~~ 36,000원

2학점 ~~75,000원~~ 60,000원

2학점 ~~75,000원~~ 60,000원

'티처몰 플로깅 세트' 들고 동네 쓰레기 '줍줍'

플로깅 체험단 '쓰담쓰담 챌린지' 운영… 교구 무상 지급

글. 에듀커머스사업부 상품기획팀

쓰담쓰담
건강한 지구만들기 챌린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활동 '플로깅'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싶은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운동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플로깅'부터 시작해보자.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plocka upp'(이삭줍기)와 영어단어 'jogging'(달리기)이 합쳐진 단어다.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플로깅을 데이트로 선보여 화제가 됐다. 간단한 복장과 쓰레기를 담을 집게와 봉투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플로깅의 매력을 잘 보여줬다. 또 플로깅은 환경보호 활동이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실천할 수 있는 활동임을 제시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 플로깅 데이트 장면(사진은 ENA).

해양생물의 보금자리까지 위협… 환경보호 절실해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격히 늘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3위로 일본의 3배가 넘는다. 재활용 쓰레기는 매립되면서 지구대기를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려 들어가 해양생물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구가 위험하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 우리 모두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티처몰 플로깅 세트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티처몰(에듀커머스사업부) 상품기획팀에서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ESG 기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플로깅 교구를 출시했다. 소풍이나 운동회 후 또는 하굣길에 쓰레기를 주울 수 있도록 집게와 봉투로 플로깅 세트를 구성했다. 또 한 달에 한 번 추첨을 통해 3학급을 선

정해 학생들이 모은 쓰레기를 제로웨이스트 선물로 되돌려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환경보호에 앞장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홍세영의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수업』 표지.(테크빌교육 출판)

성취와 보람을 깨우치는 교육적인 활동

최근 테크빌교육에서 출간한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수업』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학생이 플로깅을 통해 '나도 지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내용이 나온다.

플로깅 활동이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임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 돼준 사례다. 그동안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했다면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운동회를 하고 나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가벼운 플로깅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쉽고 재미있는 환경교육이 될 것이다.

티처몰 플로깅 체험단 '쓰담쓰담 챌린지' 운영

티처몰은 '쓰담쓰담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플로깅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쓰담 달리기'는 플로깅의 순우리말로 '쓰레기를 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쓰레기를 담고 주울 때 잘했다는 의미의 칭찬과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아직 생소할 수 있는 플로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이벤트와 함께 SNS와 티처몰에 소개해 플로깅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플로깅 체험단 모집, 활동 적극 장려

8월 중순부터 30학급의 체험단을 모집하고 10월 말까지 플로깅 교구를 각 학급의 학생 수만큼 무상으로 지급해 플로깅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플로깅을 마친 학급의 포토 후기를 모집해 추첨을 통해 매달 3학급의 학생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선물을 나눠준다. 쓰레기를 순환해 선물로 되돌려주는 제로쉐이스트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플로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티처몰 플로깅 교구세트.

플로깅, 환경보호에 운동 효과는 덤

플로깅은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은 활동이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활동이 런지나 스쿼트 운동과도 같다. 환경보호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플로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

새 학기부터는 '티처몰 플로깅 세트'로 우리 동네 환경보호에 앞장서자!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5가지 선결 과제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글. 김종헌 대전과학고 선생님

"수많은 데이터가 학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대전과학고에 재직 중인 김종헌 선생님이 말했다. 김 선생님은 학생별 도서 대여 내용과 나이스의 정기고사 결과도 개인 맞춤형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공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5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는 축적되는데 분석하고 활용할 줄 몰라

교육과정에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

생들에게 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관리하기 위해 저장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다 보니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데이터 활용하면 개인 맞춤 진학 로드맵까지 그릴 수 있어

전국 초·중·고에서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는 책 한 권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대출 관련 데이터들은 연관규칙(장바구니 분석) 등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로 적성검사 결과와 도서 대출 이력을 결합하면 진로 적성까지 고려한 도서 추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정보와 성적의 정보가 더해지면 사용자기반 협업 필터링을 활용해 진로 적성을 고려한 선택과목 추천도 가능합니다. 대입 진학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머신러닝을 활용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로드맵까지 그려줄 수 있습니다.

학교가 가진 데이터만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가능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넘어 학습지도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 및 교수법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학교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는 교사들에게도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스에는 매 학기 정기고사 결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문항당 배점 및 정·오답 정보가 있으므로 고전검사이론이나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면 교사들에게 평가의 신뢰도나 문항 변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 문항을 수정·보완해야 평가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하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교원평가도 가능

현재의 교원평가는 교사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통계를 활용해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사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기 위한 교원평가가 아닌 수업과 학생 지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원평가

약력 김종헌

•대전과학고등학교 교사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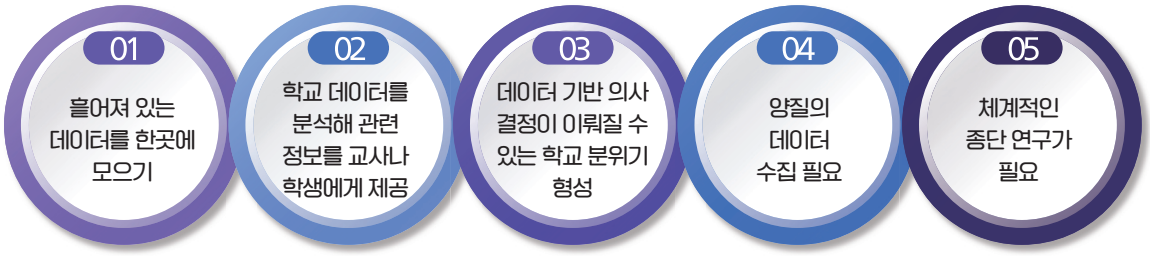
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 전략이나 과정 중심 평가 등에 대한 학생 설문을 추가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년의 교직 경험에서 이러한 노하우를 배웠다면 요즘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학기만에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가 이뤄지려면

이미 학교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원하면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넘어 학습지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한곳에 모여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각각의 업무 담당자들만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차세대 나이스 등과 같은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보관 관리돼야 합니다. 피가 원활히 흘러야 건강하듯 데이터도 원활하게 흘러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자와 같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둘째, 학교 데이터를 분석해 관련 정보를 교사나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이나 전담 인력을 활용하지 말고 차세대 나이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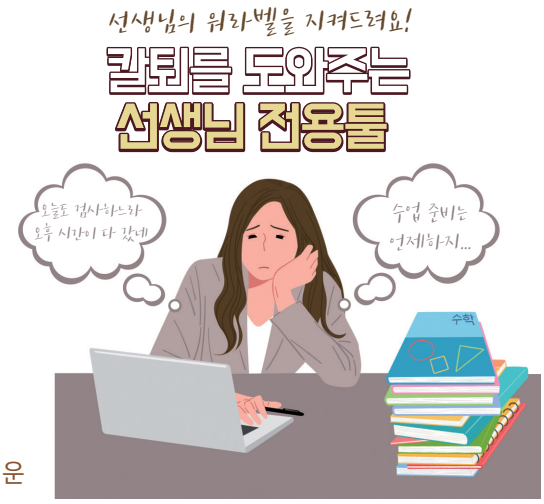
에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께 자문해보니 인터넷에 공개된 분석 방법들이고, 구글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카피할 수 있는 기능이라 기업으로서는 뛰어들 이유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며칠에 1개 정도씩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이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관리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의 질과 교수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당연한 듯 학교에 요구해야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빠르게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넷째,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타당도·변별도·신뢰도 등이 확보된 문항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문항의 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진단 평가 문항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면 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교수법이 아니라 사전 사후 역량 비교를 통해 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희망 등을 고려한 양질의 데이터가 쌓여야 교사·학생·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가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체계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졸업 후 자아실현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교육하는 데 이바지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



선생님, 오늘부터 '다했니'로 째깍째깍 정시퇴근하세요!

인터뷰. 최지원 서울 풍성초등학교 선생님

서비스 출시 10개월 만에 2만 명의 선생님이 가입한 화제의 온라인 학급 운영 시스템 '다했니? 다했어요!'. 과제를 내고, 걷고,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학생별 피드백까지 전달해야 하는 이 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입소문이 퍼져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개발자가 현직 선생님이라는 것! 궁금한 마음에 '티처빌이 간다'에서 '다했니? 다했어요!'의 개발자인 최지원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았다.

Q 선생님을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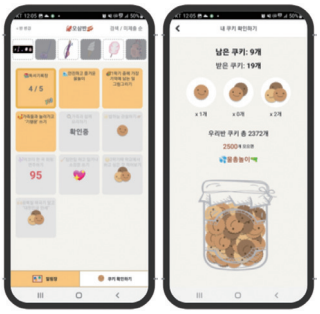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풍성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7년차 교사 최지원입니다. 평소 게이미피케이션에 관심이 많아 게임이해하기교육 선도교사 및 교사연구회 '게살통통'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학생관리 도구 '다했니, 다했어요(이하 다했니)'를 기획·개발해 선생님들의 교실 속 업무를 덜어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Q '다했니'는 어떤 도구인가요?

'다했니? 다했어요!'에서 '다했니?'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과제) 다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다했어요!'는 학생이 과제를 다 했을 때 선생님께 "다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의 명칭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학생관리와 피드백'에 중점을 둔 온라인 학급 운영 시스템인데요, 몇 가지 특장점을 소개해볼게요.

직관적인 UI, UX(사용자 환경, 경험)와 간편한 회원가입

'다했니'는 초등학교 1학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UI, UX가 직관적이에요. 과제 제출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색상으로 교사가 직관적으로 우리 학급, 학생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앱의 경우, 복잡한 가입 절차를 생략하고 선생님이 제공한 초대 코드를 학생이 입력만 하면 연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했어요'(학생용)의 직관적이고 단순한 화면.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가 노란색으로 뜨고,
제출 시 자동으로 회색으로 바뀐다.
자신이 받은 '쿠키'의 누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학생에게 과제 피드백, 푸시 알람, 보상제도까지

교사가 과제를 내면 학생마다 해당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색이 달라져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게이미피케이션 측면에서 리워드(보상)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쿠키'라는 기능을 생성했어요. 아울러 '우리반 쿠키함'을 만들어 쿠키가 자동 합산되고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학급 온도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쿠키를 제공하고 일정량의 쿠키를 모으면 물물교환이나 다른 학급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데, 선생님마다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올 정도로 활용도가 좋아요. 최근에는 쿠키로 경제 교실을 운영하거나, 기부활동을 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다했니'의 과제 확인 화면과 '쿠키' 및 '피드백'을 작성하는 팝업창. 학생의 과제 제출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이 바뀌어, 직관적으로 어떤 학생이 제출을 안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수신확인이 가능한 알림장 기능

e알리미 등과 달리 수신확인이 가능한 알림장 기능을 제공해 내용 확인을 하지 않는 친구에게는 개별적으로 추가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했어요. 또 특정 학생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수신 대상 설정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수신 대상 설정을 할 수 있고, 학생의 '읽음 처리'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이 바뀌어, 직관적으로 어떤 학생이 알림장을 미열람했는지 파악 가능하다.

약력 최지원

- 서울 풍성초등학교 교사
  '다했니? 다했어요!' 기획·개발
- 교사 업무 효율화·자동화, 그리고 아날로그 게이미피케이션 연구
- 2020 게임이해하기교육 교사연구회 '게살통통'
- 사회과 게임 '우리고장 Build-it'(최우수)
- 2021 게임이해하기교육 선도교사 활동(우수강사 선정)

데이터 초기화해도 누가 기록되는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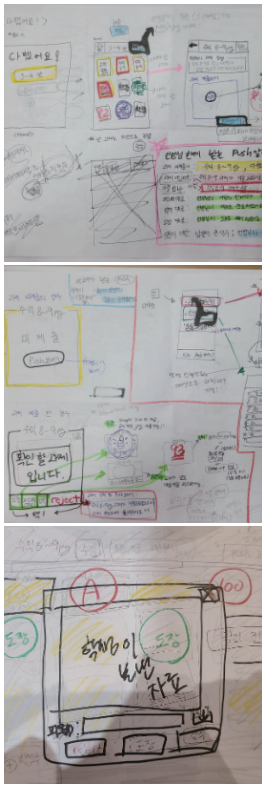
흔히 사용하는 엑셀 형태의 체크리스트는 한 화면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상세기록을 남기기도 어려웠다면 '다했니'의 체크리스트는 상태에 따라 초록색·회색으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매일 데이터를 초기화해도 상세기록은 남길 수 있어 누가 기록 관리까지 가능해요. 한 마디로 학생별 과정 중심의 성장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수 있어요.

'다했니'가 학습관리에 방점을 찍은 도구라지만 체크리스트 기능에서도 편리성이 뛰어나다 보니 학생에게 앱 설치를 시키지 않고, 이 기능만 활용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어요.

체크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이 바뀌고, 필요한 경우 하나씩 클릭하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간편 메모를 빨간 글씨로 오버레이 할 수 있다.

Q 직접 앱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과정도 궁금한데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줌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점검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써보자고 해도 그걸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보통 패들렛·카카오톡·네이버 밴드·클래스팅 등을 많이 사용했는데, 모두 SNS의 성격이다 보니 피드가 자꾸 내려가 학생별로 과제를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이 화면을 열어놓고 수기로 A4 용지에다 학생마다 제출 여부나 과제 피드백을 정리해야 했죠. 학교 밖에서는 '미래교육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교사의 실제 업무수행 방식은 아날로그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직접 미래교육에 적합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기획, 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맨땅에 헤딩하듯 생각하는 것을 그려가며 개발자를 수소문해 앱을 출시하게 됐어요. 준비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개발자를 만나 '다했니'를 출시할 수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그렸던 2020년 초창기의 '다했니' 기획서.

Q 다른 도구들(구글 클래스룸 등)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극히 교사 중심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에듀테크라도 결국 교사가 사용하기 간편하고, 학생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카톡은 불편하고, 구글 클래스룸은 '투 머치'라고 생각했어요. 카톡이나 기타 학급 SNS의 경우, 아무래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기획·개발된 도구들이다 보니 교사가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느낌도 있었고요. 저는 미래에도 컴퓨터, 디지털로만 모든 교육이 이뤄지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경험, 실천'이 더 필요하죠. 하지만 구글 클래스룸은 디지털 형태의 과제를 내주고 관리하는데 최적화돼 있는데요. 아직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초등학생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 조작물 형태의 과제가 훨씬 많은데, 구글 툴을 쓰기에는 다소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다했니'는 아주 직관적인 '앱'을 이용하는 형태여서 초등학교 1학년도 과제를 찍어 쉽게 보낼 수 있고, 교사는 '웹'에서 간편하게 학생별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Q '다했니'를 주제로 연수도 진행 중이죠?

네. '다했니'를 잘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사례 나눔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했니'가 직관적인 도구이다 보니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지만 다양한 사례를 알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엑셀'이나 '노션'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다했니' 안에 동기를 부여하는 '뱃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다양한 학급 활동과 교과 연계 활동으로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거예요. 또 초등이냐 중등이냐에 따라서도 활용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팁을 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의 노하우를 적용해 보면서 감을 잡고 점차 커스터마이징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2학기부터 추가된 '누가기록 및 리포트' 화면.
간편하게 학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정리된 리포트로 볼 수 있다.
누가기록은 학생이 앱에서 볼 수 없다.

Q 교사로서 또 앱 개발자로서의 향후 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도구의 개발 없이, 교사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했니'가 과정 중심의 평가, 학생별 맞춤 지도 등 미래교육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구상하고 기획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실시간 학습 이해도 측정이라든가, 교사용 앱 개발, 학생용 웹 개발 등 각종 크고 작은 편리한 기능의 추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2학기에도 '리포트' 기능, '누가 기록 및 쿠키 추가 기능' 등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Q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는?

'많이' 바꿀수록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하던 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진짜로 꿈꿔오던 것을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혁신' 아닐까요? T

선생님, 오늘부터 '다했니'로 모두 정시퇴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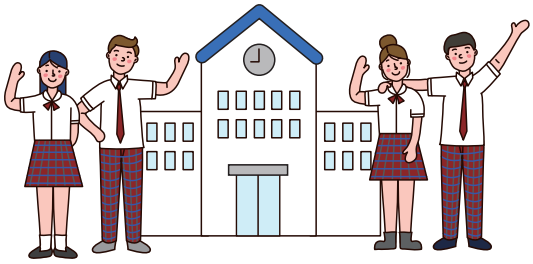
'다했니'
활용 안내 영상

'다했니'
사용자 커뮤니티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사 그리고 부모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식

글. 천경호 성남서초등학교 선생님



지난 7월 학교 교육의 붕괴를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칼과 톱으로 교사와 친구를 위협하는 초등학생의 이야기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다수의 학생도 아니라 단 한 명의 초등학생에게 온 학교가 좌지우지되며 시달렸다. 또 그 소식을 접한 많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다. 그래서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 학교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졌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

교육(敎育).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합쳐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일까? 교육의 대상인 학생과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하는 교사와 부모를 합쳐 우리는 '교육의 3주체'라고 부른다.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아이에서 자신과 타인,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자기초월적인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는 배운 사람, 문명화된 인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어려운 과제의 연속,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

자신만 즐거운 것보다 자타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 개인을 넘어 가족을, 가족을 넘어 지역을, 지역을 넘어 국가를, 국가를 넘어 세계를, 세계를 넘어 우주나 생명과 나 자신과의 상관을 이해하고 공존을 위한 실천을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과 같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자기를 초월한 다양한 집단 혹은 개체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어려운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란 참 어려워

어렵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내가 되기란 어렵다. 때에 맞춰 고

른 영양소와 적당한 칼로리를 지키고, 30회 이상의 저작 활동을 하며 식사를 챙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하루 평균 권장 수면시간을 지키기도 어렵고, 주 3회 30분 이상 숨이 찬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날마다 거르지 않고 책을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일도 어렵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어른들 대다수의 삶은 이와 반대를 향하고 있다.

어려움에 마주한 아이, 누가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나?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어떨까? 어른들보다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미성숙하니까 어른과 비교해 자신의 충동을 더 조절하기 어려워할 테고, 어렵고 힘든 것보다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가까이에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노력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가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까? 부모와 교사 그리고 친구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타인이란 존재가 곧 환경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같은 상황만 반복될 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학교폭력 가해 행동으로 인해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교사가 아이에 대해 아는 거라곤 생기부 징계기록뿐이다. 부모의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다. 교사는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일이다. 가벼운 서면사과가 아닌 전학이라면 이전 학교 구성원 다수로부터 수용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를 싫어하는 교사와 친구들 속에서 오랜 기간 학교생활을 한 아이는 전학을 와서도 같은 방식으로 교사와 친구들을 대한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싫어할 것이라는 짐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처럼 다가온다. 학교가 바뀌어도 아이 마음속에 높이 세워진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고립시키는 악순환으로 쉽게 이어져

쉬는 시간. 누군가 아이의 책상을 치고 지나간다. 아이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표출한다. 다른 아이들은 욕설만 들었을 뿐 책상을 치고 간 아이를 보지 못한다. 욕설만 들은 다른 아이들은 전학 온 아이 곁에 가지 않는다. 자주, 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남발하는 아이 주변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이는 다시 자신을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킨다.

결국 아이를 다시 문제아로 내몰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나도 욕설 대신에 '조심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전학 온 아이는 더 나은 방식으로 자

약력 천경호

•성남서초등학교 교사
•저서) 『리질리언스-다시 일어서는 힘』(교육과 실천),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아이들』(이후),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사의 말공부』(우리학교) 외 다수

신의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누구도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앙금이 쌓여만 간다. 쌓이고 쌓인 앙금은 결국 적대감을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이웃사촌은 옛말, 아이 키우기 팍팍한 세상

해가 갈수록 지도하기 어려운 아이의 수가 늘어난다. 아이를 키우는 집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아이를 키우는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줄어든다. 잘 키우는 법을 배울 곳도 없다. 가까이에서 조언을 구할 부모로서의 선후배 역할을 해줄 건강한 타인이 없다는 뜻이다.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고충과 보람을 나눌 사람도 없다. 도시 거주 비율,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이 넘은 지금 이웃사촌이란 말은 그저 흘러간 옛날을 추억하는 낱말일 뿐이다.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로부터 지지와 격려받으며 성장해야

자신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타인을 만나 정해진 시간에 등·하교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며, 다양한 학문에 비춰 미성숙한 자기 생각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애쓰도록 격려하는 곳. 바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서 아이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지지받고 격려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을 양성하는 공간 '학교'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사람은 변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문명이 최선의 방식이라 여기고, 학교라는 곳에서 여러 아이가 한자리에 모여 배우도록 제도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세계아동인권선언에서도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 아닌가? 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자기를 실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이전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신념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 아니라 증명해온 역사이고 법칙이라는 걸 학교라는 존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사와 부모가 손잡고 무너진 학교 교육 바로 세워야

바로 그 사람은 변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는 부정하지 않도록,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 함께 애쓰고 있는 교사와 부모가 서로 손을 맞잡고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함께 손잡는 것이 무너진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선생님의 수업 준비가 즐거워지는

초등수업공유 플랫폼 클래스메이커

검정교과서에 딱 맞춘 **20만 개 콘텐츠**와
상호반응 저작도구, 즐겨찾기 리스트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세요.

NEW

영상에 퀴즈를 더해 상호반응 미디어를 만드는 저작도구

+

OX 문제

객관식 문제

빈칸 채우기

=

영상을 보면서 **쏙쏙** 문제를 풀고!
이해도는 **쑥쑥** 올라가고!

지금 바로 써보기 ▶

클래스메이커에서는 **12개 검정출판사** 교과서 수업자료를 모두 제공합니다!!

금성출판사 (주)교학사 김영사 DAEKYO 동아출판 천재교과서
visang Mirae N 지학사 천재교육 와이비엠 i-Scream media

클래스메이커 문의 | 02-3442-7783(4번) http://classmaker.teacherville.co.kr

테크월드 (2022. 6. 10)

테크빌교육, 1억뷰N잡과 '메타버스&디지털전화(DX) 실전 활용 클래스 개설

테크빌교육이 1억뷰N잡과 '메타버스와 디지털 전환(DX) 실전 활용 클래스'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1억뷰N잡은 윌비스가 만든 e커머스 전문 창업교육 온디맨드 플랫폼이다. 테크빌교육은 지난 1월 윌비스와 콘텐츠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뷰N잡 플랫폼을 통해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첫 선을 보이는 메타버스&DX 실전 활용 클래스는 메타버스 코스, DX 코스, 비즈니스 코스로 구성된다. 메타버스와 디지털 전환 관련 지식과 사례, 실무형 실습을 제공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각 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별 이수증과 인증서도 발급한다. 강의는 박기현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분 대표와 박선주 테크빌교육 이사가 진행한다. 3개의 코스 중 첫 과정인 메타버스 코스는 이프랜드, 게더타운, 젭, 제페토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실무 활용방법을 다루는 클래스를 제공한다. (기사하략)

조명의 기자

전자신문 (2022. 7. 1)

테크빌교육, 소프트파워와 업무협약 체결… '티스푼' 통해 공교육에 노코딩앱 제공

테크빌교육이 노코딩 애플리케이션(앱) 저작도구 '스마트메이커'를 운영하는 소프트파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메이커는 학생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움을 받아 코딩 없이 쉽게 앱과 디지털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과 연계가 가능해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학생 스스로 원하는 앱을 제작할 수 있고, 특성화고에선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이 만든 앱을 교사나 학부모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테크빌교육은 협약으로 스마트메이커를 테크빌교육 에듀테크 플랫폼 '티스푼'에 입점하기로 했다. 티스푼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교육 지원 서비스다. (기사하략)

김명희 기자

벤처스퀘어 (2022. 7. 19)

테크빌교육, AI 교육 '투닝' 운영사 툰스퀘어와 업무협약

테크빌교육이 놀이와 체험 중심의 AI(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투닝'의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툰스퀘어는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프로젝트인 C랩을 통해 창업한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글로 쓴 문장을 만화로 바꿔주는 AI(인공지능) 웹툰 서비스 '투닝'(Tooning)이다. 투닝은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로 웹툰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인공지능)가 문장을 분석해 학교, 골목, 사무실 등 스토리와 어울리는 세세한 배경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캐릭터와 대사까지 삽입하는 방식이다. 문장을 길게 입력할수록 섬세한 연출이 가능하다. 테크빌교육은 이번 협약으로 '투닝'을 테크빌교육의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인 '티스푼'에 입점하기로 했다. 티스푼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한 데 모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교육 지원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사하략)

오효진 기자

베리타스알파 (2022. 7. 25)

테크빌교육, 'AI 코디니' 활용 라이브 연수 진행…초등 융합 수업 사례 제시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KT 'AI 코디니(Codiny)'를 활용한 초등 융합 수업 사례를 라이브 연수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연수는 석성초등학교 교사이자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 연구개발 팀장인 홍지연 교사가 진행했다. 테크빌교육은 올 초부터 KT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플랫폼인 'AI 코딩블록'을 활용한 라이브 연수를 진행해 왔다.

(기사중략) 테크빌교육은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AI 코디니를 활용한 라이브 연수를 진행했으며 연내 3번의 라이브 연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진행한 라이브 연수에는 100명이 넘은 교사가 사전 신청했고 AI 융합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AI 코디니를 활용한 수업 실습을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교 안에서는 인공지능 수업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연수 후기를 전했다. (기사하략)

신승희 기자

뉴시스 (2022. 8. 2)

스마트 손잡은 교육업계… AI 기술 도입 에듀테크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 강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듀테크'(교육과 기술의 융합)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듀테크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AI)은 분야를 막론하고 각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며 교육 시장 변화에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다.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은 국내 여러 교육 기업들과 손잡고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AI 전용 강사부터 맞춤형 성장 로드맵과 학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서다. 투닝은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로 웹툰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가 문장을 분석해 학교, 골목, 사무실 등 스토리와 어울리는 세세한 배경을 자동으로 생성, 캐릭터와 대사까지 삽입한다. (기사중략) 테크빌교육은 이번 협약으로 투닝을 자사의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인 '티스푼'에 입점하기로 했다. 티스푼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공교육 지원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이다.

배민욱 기자

전자신문 (2022. 8. 10)

교사가 직무연수 서비스 만든다… 티처빌 '티스콘' 출시

테크빌교육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티처빌)은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직무연수 서비스 '티스콘'을 이번달 중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티스콘은 티처빌을 이용하는 교사가 나만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직무연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수 주제는 제약이 없다. 교사 개인은 물론 교사 모임에서 연구한 내용도 짧은 영상의 직무연수로 선보일 수 있다. 다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직무연수 승인을 위해 최소 1차시(약 25분)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야 한다. 티처빌은 많은 교사가 다양한 주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티스콘 참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사는 티스콘 크리에이터로 등록 후 제작 콘텐츠 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후 티처빌이 기존 콘텐츠와의 중복성, 교원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크리에이터 교사와 함께 KERIS의 콘텐츠 품질 인증 심사를 준비하고 승인된 연수를 제공한다. (기사하략)

김명희 기자

신아일보 (2022. 8. 24)

"새 학기 학급 준비물 한 곳에 다 모았다"… 티처몰, "예산 맞춤 이벤트" 진행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의 교육전문 쇼핑몰 '티처몰'이 새 학기를 맞아 '신학기 준비물 예산 맞춤 이벤트'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티처몰의 예산맞춤서비스는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새학기 물품을 티처몰 장바구니에 담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금액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서비스다.

새학기 준비물은 △교과서 준비물 △신학기 문구 △학급 운영템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교과서 준비물은 6개 출판사(△금성 △동아 △비상 △능률 △대교 △지학사)의 학년·학기단원별 준비물을 제공한다. 신학기 문구는 형광펜, 악보파일과 같은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과 함께 장애 이해 교육 교구인 '편견 지우개'와 같이 티처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상품도 판매한다. 학급 운영템은 교실 꾸미기 Set, 모둠 활동 알림판과 같이 학급 운영에 필요한 교사 아이템을 모두 모았다. (기사하략)

권나연 기자

ITWorld (2022.9.5)

테크빌교육-김영사 MOU 체결... 초등수업공유 플랫폼 '클래스메이커' 고도화

테크빌교육의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하 티처빌)이 공교육 초등교사 수업 지원 강화를 위해 김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티처빌은 초등수업공유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통해 김영사 검정교과서와 연계한 수업 콘텐츠를 이달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클래스메이커와 교과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은 업체는 ▲금성 ▲YBM ▲교학사 ▲지학사 ▲대교 ▲김영사 총 6곳이다. (기사중략) 새 학기를 맞아 '클래스메이커'는 영상에 퀴즈를 더해 상호반응 미디어를 만드는 저작도구를 9월 13일 오픈한다. 검정교과서에 적합한 큐레이션 콘텐츠와 상호반응 저작도구, 즐겨찾기 리스트를 제공해 교사가 아이들에게 콘텐츠를 바로 공유하여 더 쉽고 재미있는 상호반응 수업 환경을 제시한다.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김지혜 대표는 "학생 AI 기반 학습분석 서비스로 1인 1디바이스 디지털 교실을 위하여 티처빌에게 '클래스메이커'가 본격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클래스메이커가 교사의 수업 준비를 지원하고 K-12 시장을 적극 공략해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World 편집부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직무연수 서비스 '티스콘' 출시

글. 티처빌사업부 콘텐츠기획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하 티처빌)이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직무연수 서비스 '티스콘'(Teacher's Contents)을 출시했다. '티스콘'은 티처빌을 이용하는 교사가 나만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직무연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원격교육연수 콘텐츠에 대한 수요

교사들을 만나 원격교육연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5차시보다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제의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아쉽게도 이런 의견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15차시 연수를 만들기에도 수 개월의 시간과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또 많은 회의와 고민을 거쳐 제작이 시작되고, KERIS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에도 수 개월이 걸리는 환경에도 이유가 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원격교육연수가 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교

사들이 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였다. 많은 교사가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을 위해 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영상 콘텐츠였다. 과거에는 '영상'이 전문 영역이라는 생각에 거리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교사가 직접 만드는 직무연수 서비스 '티스콘'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티처빌은 2학기를 맞아 '티스콘'이라는 직무연수 서비스를 출시했다. 교사들의 콘텐츠 '티스콘'은 영상의 기획과 제작을 교사가 직접 한다. 물론 기획 단계에서 더욱 많은 교사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교사가 영상을 제작할 때도 KERIS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이후 티처빌에서 내용심사를 접수하고 합격한 뒤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교사로서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더욱 많은 교사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의미 있는 이력을 가질 수 있다. 유료로 판매한 콘텐츠에 대한 수익 배분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만큼 '티스콘'으로 기획한 콘텐츠는 적은 분량으로 기획한다. 적게는 1개 차시부터 많게는 8개 차시로 개발하며 보통 3~5개 차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시 수가 적은 것은 영상을 개발하는 교사에게도 연수를 듣는 교사에게도 각자가 가진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15차시 분량으로 채우기에는 모호하지만 짧은 내용으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구성해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주제의 범위도 매우 넓어지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원격직무연수로 접할 수 있는 신선한 주제의 콘텐츠가 많아진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기에 더 의미 있는 법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티스콘'을 처음 접한 교사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 아직까지 영상 제작이라는 영역과 내용심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번 겪어본 교사들은 하나같이 "더 해볼 걸 그랬어요"라고 말한다. 겪어보지 않았기에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은 큰 법이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티스콘'으로 접수한 16개 과정 중 불합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기에 티처빌과 교사가 함께 도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도 티처빌은 교사와 함께, 교사는 티처빌과 함께 서로에게 의미 있는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티처빌, KT 'AI 코디니'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직무연수

글. 티처빌사업부 콘텐츠기획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AI 코딩블록(AI 코디니)' 교육 내용(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KT의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플랫폼인 KT AI 코딩블록이 지난 6월 'AI 코디니'(AI Codiny)로 새롭게 태어났다. AI 코디니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모델 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KT AI 코딩블록의 캐릭터인 코디니(Codiny)의 특성을 살려 친근함을 강조했다.

티처빌, AI 코디니 확산 위해 KT와 함께 자문위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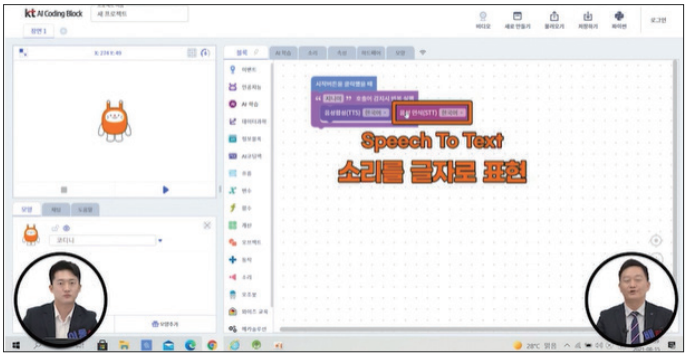
티처빌과 KT는 AI 코디니의 확산을 위해 자문위원을 운영한다. 자문위원은 총 10인으로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진과 교육 현장에서 AI 교육을 실천하는 초·중등 교사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AI 코디니가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홍보 방안뿐 아니라 AI 코디니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 AI 코디니로 브

랜드명을 변경한 것도 현장 교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자 기업 로고를 삭제하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AI 코디니, 활용한 라이브 연수도 진행… '쌤동네'로 모집

KT 'AI 코디니' 소개 이미지(사진은 AI 코디니 공식 사이트(https://aicodiny.com/in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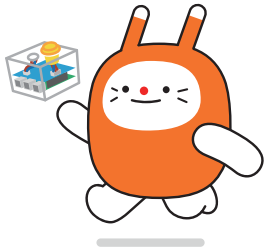
티처빌은 지난 7월 21일 AI 코디니를 활용한 초등 융합 수업 사례를 라이브 연수로 진행했다. 연수 진행은 석성초등학교 교사이자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의 팀장으로 활동하는 홍지연 교사가 맡았다. 본 연수는 AI 코디니를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과 AI 융합 수업의 방향성을 다뤘다. 신청자는 교사의 정보 공유 플랫폼인 '쌤동네'를 통해 모집했으며, 100명이 넘는 사전신청을 기록했다.



KT 'AI 코디니' 활용한 융합 수업 사례 라이브연수 장면(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티처빌과 KT는 지금까지 3회의 라이브 연수를 진행했다. 첫 회로 진행된 라이브 연수는 AI 코디니의 교과 활용 방안과 수업 적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2회차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밝힌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과 AI 코디니의 기능적 특징과 우수성을 안내했다. 금번 진행된 3회차에선 추가된 AI 코디니로 AI 융합 수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천법을 제시했다.

티처빌에서 'AI 코디니' 활용한 직무연수 만날 수 있어



티처빌은 AI 코디니를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티처빌과 KT가 함께 개발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AI 코딩블록(AI 코디니)'은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인공지능 윤리를 다룬다. 현장 실습과 수업 활용 방법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향후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AI 교육의 시작을 본 연수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

출처: 티처빌교육연수원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3기	**4학점**	**09월 07일**	**10월 18일**	**10월 15일**	**10월 21일**
	3학점	09월 07일	10월 11일		10월 12일
	3학점	09월 21일	10월 25일		10월 26일
	3학점	10월 05일	11월 08일		11월 09일
	3학점	10월 19일	11월 22일		11월 23일
	2학점	09월 07일	10월 04일		10월 05일
	2학점	09월 21일	10월 18일		10월 19일
	2학점	10월 05일	11월 01일		11월 02일
	2학점	10월 19일	11월 15일		11월 16일
	1학점	09월 07일	09월 27일		09월 28일
	1학점	09월 21일	10월 11일		10월 12일
	1학점	10월 05일	10월 25일		10월 26일
	1학점	10월 19일	11월 08일		11월 09일
4기	**4학점**	**10월 26일**	**12월 06일**	**12월 03일**	**12월 09일**
	3학점	11월 02일	12월 06일		12월 07일
	3학점	11월 16일	12월 13일		12월 14일
	3학점	12월 01일	12월 20일		12월 21일
	3학점	12월 07일	12월 27일		12월 28일
	2학점	11월 02일	11월 29일		11월 30일
	2학점	11월 16일	12월 06일		12월 07일
	2학점	12월 01일	12월 20일		12월 21일
	2학점	12월 07일	12월 27일		12월 28일
	1학점	11월 02일	11월 22일		11월 23일
	1학점	11월 16일	12월 06일		12월 07일
	1학점	12월 01일	12월 20일		12월 21일
	1학점	12월 07일	12월 27일		12월 28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선생님!
학부모교육 고민이세요?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맞춤형!** 계획만 있다면, **제안형!**

검증된 부모교육 7년 노하우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모공감 아카데미

소통, 학습, 진로진학, 사춘기까지!
학령별,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행사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단체연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전하는 부모교육
시간, 장소 상관없는 **간편한 모바일 학습!**
모집 대상과 수요가 다양하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명사특강

전문 명사와 함께하는 특강·토크쇼
교육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강력 추천!
명사와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 비대면LIVE
- 온라인VOD

교육문의 1800-9502 www.bumoschool.com

부모공감

· 2022년 티처빌 신규과정 · Coming Soon

영화로 보는 직무연수 시네버스
(Cine+Universe), 지금 출발합니다!

30차시

민규동과 함께하는 시네버스

민규동

강의 특징

- 영화의 형식과 종류 등 기본 지식과 영화의 제작 원리 이해
- 영화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내는 방식 지도
-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흥미 유발, 문화예술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강의 개요

본 연수에서는 예술이라는 범주에서 영화만이 가진 특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영화는 현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익숙한 매체로, 영화를 제작하는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영화에 관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친구와 가족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는 세계와 문화,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본 과정을 통해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살펴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 관련된 현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직업적 성취감을 간접 체험하며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

알면 교직 생활이 쉬워지는 IT 교육!

60차시

누구나 아는 나만 모르는 교육 IT

송성근, 이성원

강의 특징

- 교직 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 및 구글 사용법, 윈도,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다방면의 IT 기능을 익혀 직무 능력 향상
- 실제 IT 기능을 구현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강의가 구성돼 쉽게 익힐 수 있음

강의 개요

본 연수는 교사로서 익혀두고 알아야 할 교직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IT 기능을 다루고 있다. 업무 담당자로서 역할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실무 기능과 학생 지도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알면 업무가 쉬워지고 빨라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 및 사용법도 소개한다. 본 연수는 교사가 다방면의 정보통신기술을 익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친 교사를 위한 자존감을 키우는 이야기

30차시

소중한 당신, 교사

서준호

강의 특징

- 자존감이 깎이고 상처받은 교사의 회복 지원
- 자존감 하락의 원인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흐름 이해
- 심리극에서 얻은 이해와 통찰을 내 삶과 자존감 회복 및 유지에 적용

강의 개요

교사의 자존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학생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 교실에서의 안정감과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교사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만 하지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높여줄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은 부족하기만 하다. 이에 자존감 치유 과정의 워크숍 사례를 연수로 재연하고, 집단 역동이 어떻게 실제 교사 치유로 이어지는지 연수로 담았다. 교사들이 연수 속 치유작업을 간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처의 근원을 파악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을 돕는다. 또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키우고, 나아가 우리 교육 현장에 조금 더 자존감 높은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나가도록 돕고자 한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메타버스 활용법

8차시

우리가 꿈꾸던 메타버스 교실 수업, 메타몽

박지웅, 배준호
이준권, 조안나
한의표

강의 특징

- 메타버스의 정의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사례 제공
-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한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메타버스의 상관관계 설명
-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각 플랫폼과 어울리는 교육적 활용법 공유

강의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만남이 늘어나면서 메타버스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이 소통하도록 돕는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활용된 기술을 의미한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참여자는 물리적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기업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수는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법을 담았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젭·스팟·아트스텝스·모질라 허브 등)의 특징을 소개하고,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수업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한 진로 교육에 최적화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해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업 노하우를 제공한다.

달리면 생활체력·문제해결·자신감이 '쑥쑥'

건강한 선생님 되기 프로젝트, '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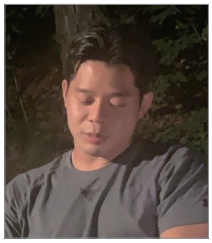
글. 정규하 반포중학교 선생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고난을 잘 버텨내는 내력이 아닐까? 그리고 그 내력을 기르는 것은 체력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100㎞ 뛰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 최근에는 여럿이서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뛰쳐'라는 교사 러닝 모임도 결성했다.

내가 달리는 이유

"모든 건물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야.
바람·하중·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드라마 〈나의 아저씨〉 대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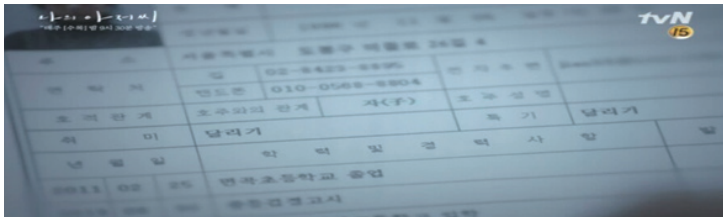
약력 정규하

•반포중학교 교사

최근 인상 깊게 본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한 대사다. 극 중 구조기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박동훈(이선균 분)이 회사의 계약직 직원인 이지안(아이유 분)에게 하는 말이다. 이에 덧붙여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

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라고." 크게 공감이 되는 대목이다.
나라는 인간의 내력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내력을 다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체력'이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 하지만 고통의 크기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언제부터인가 고통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체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선택했다. 장거리 달리기의 효과는 아주 좋았다.

지안: 그때 나 왜 뽑았어요?
동훈: 달리기, 왠지 내력이 세 보여서



드라마 작가도 러너가 아닐까 예상해본다(사진은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내가 달리는 방식

한 달에 100㎞ 내외를 달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100㎞를 채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달리지는 않는다. 한 번에 보통 10㎞를 달리고, 컨디션에 따라 조금 덜 달리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뛰고 싶을 때마다 뛰었고, 뛰다 보니 기록을 트랙킹 해주는 앱에 한 달 누적 거리 80㎞가 찍히는 걸 확인했다.

"규하 샘, 조금 더 뛰어 100㎞ 채워봐요."
함께 달리기하는 동료 선생님의 말을 듣고 조금 더 노력하니 100㎞가 찍혔다. 100이라는 숫자가 보기에도 시원하고 계산하기도 편해 이를 한 달 기준으로 삼고 뛰고 있다.

달리면 얻는 것들

달리면 얻게 되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개인적으로 도드라지는 이점은 생활체력·문제해결·자신감이다.

첫째, 생활체력이 좋아진다. 장거리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이고, 유산소운동은 심폐지구력 향상의 효과가 있다. 말 그대로 심장과 폐의 용량이 커지고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신체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자주 달릴수록 컨디션이 좋아지며 덜 피곤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덤으로 같은 상황에서 짜증보다 웃는 일이 더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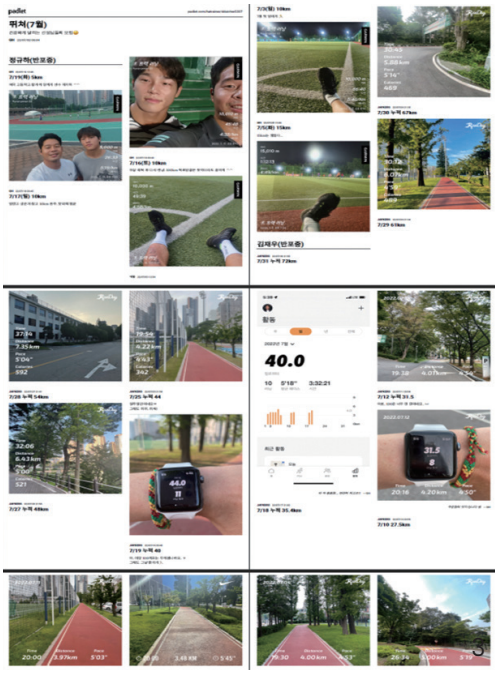
둘째, 문제가 해결된다. 하루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쓸데없는 걱정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등은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잡념을 없애려고 머리로만 노력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이다. 달리는 데 꼭 필요한 근육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더욱더 오래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잡념과 쓸데없는 행동이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피곤해진다. 뛰고 난 직후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아! 별일 아니었구나.',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이다. 달리고 나면 중요한 것만 남게 된다.

셋째,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성공 경험을 자기효능감 증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달리기는 늘 성공 경험을 선사한다.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천히 달리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빨리 달리면 멀리 달릴 수 없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하고 밖으로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목표한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목표 거리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 달릴 생각조차 못 했던 때를 떠올리면 모든 달리기가 성공이다.

> 여름에 흘린 땀을 보상이라도 받듯 고통보다는 시원함으로 가득한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뛰쳐' 모임 결성 계기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러너라는 사실을 알고 느꼈던 반가운 감정보다 현실에서 러너를 만났을 때의 반가운 감정이 더 크다.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달리지 않더라도 각자의 달리기 경험에 대



1. '뛰쳐' 로고.
2. 달리기 공유 내용.
3. 패들렛 인증 사진.

한 느낌, 달리기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면 물개박수를 치면서 그 순간의 느낌이 다시 생생하게 다리를 감싼다. 위에서 말한 달리기의 장점을 누리면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목적 및 활동 소개

'뛰쳐'라는 모임 명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뛰는+티쳐(teacher)
두 번째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잠시 뛰쳐나가 달리자'라는 의미다.

▲ 목적

각자의 달리기를 인증하고 느낀 점을 공유함으로써 달리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활동을 하기 전보다 '뛰쳐'와 함께 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더 뛰고 달리기가 더 좋아지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 활동 방식

1. 각자 상황에 맞게 달리기를 하고 앱을 활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월초에 앱에서 제공하는 한 달간 누적 거리 챌린지에 참여하고 채팅방에 알린다.
3. 달리기마다 기록이 나온 인증사진을 채팅방과 패들렛에 공유한다. 느낀 점이나 생각을 추가해도 좋다.
4. 챌린지에 성공했다면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면 커피 쿠폰을 받는다.

▲ 모임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뛰쳐'는 달리기 가장 힘든 계절인 여름, 7월에 시작됐다. 여름 장마, 높은 온도와 습도 등 여러 방해물이 힘을 합쳐 나 하나 달리는 것을 막아서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런 여름의 악조건 속에서도 고통에 마주해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쌓아 놓는다면 다가올 가을에는 마치 여름에 흘린 땀을 보상이라도 받듯 고통보다는 시원함으로 가득한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

교육외교관, 해외한국학교 교사 라이프

싱가포르에 한국형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제시하다

글. 김성현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선생님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성현 선생님에게 싱가포르에서의 삶과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았다. 김 선생님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족중심의 문화가 잡혀 있어 살기에도 매력적이고, 1학급 2교사 체제(한국인 교사와 영어교사)라 교육적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교육방안도 함께 고안할 수 있어 좋은 점이 많다고 전했다.

설렘 안고 간 싱가포르, 어느새 3년

싱가포르에서의 생활도 벌써 3년째다. 삶의 첫 싱가포르 방문이라는 설렘을 안고 창이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 나눈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데 어느새 3년이 흘렀다. 교사로 임용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해외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해보는 것이었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룬 것이다.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

싱가포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어다. 다른 언어에 비해 오랜 시간 배워왔기에 잘하진 않아도 친숙한 언어가 영어였고, 싱가포르가 영어권 국가라 선택하게 됐다. 또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아시아의 용광로(Melting Pot)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국가라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가족과도 가까워지고 더 건강해져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줬다. 우선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가족중심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저녁 시간에 테니스를 꾸준히 치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테니스코트와 수영장, 자전거도로, 조깅 코스도 잘 조성돼 있어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시작하기 좋다.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싱가포르는 밤 10시 30분 이후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편의점·술집에서도 술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으로 밤거리가 안전하다. 취객이 난동을 부리거나 술자리의 시비로 험한 광경을 볼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여성도 안전하게 조깅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 엄격한 법을 적용하기에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침을 함부로 뱉는 장면,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울 것 같지만 긴소매를 입고 다니기도

적도 지역에 있는 싱가포르는 1년 사계절 평균기온 30도 안팎을 유지하기에 옷차림이 가볍다. 겨울옷을 구비 할 필요가 없기에 옷장에도 여유가 있다. 그럼 꽤 덥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는 곳마다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기에 추위에 취약한 분들은 긴소매를 입고 다니는 편이다. 또한 길거리에는 그늘막이 대부분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햇빛을 마주하는 경우는 적다. 스콜이라

약력 김성현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초등교무부장
- 티처빌·아이스크림·티셀파·한국교원연수원 직무연수 강사
- 前) 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 초등 1정 연수 강사(독서교육)
- 저서 『독서토론논술 수업』, 『교과수업 틀을 깨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공저) 외

1

2

부르는 소위 소나기가 종종 내려 덥다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는다.

동서양의 문화와 음식을 만날 수 있어

싱가포르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재된 곳이기에 원하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식당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 음식에서부터 한국·인도·태국·중국·일본·말레이시아 그리고 서양 음식까지 미식가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미슐랭 별을 받은 음식점의 수도 한국보다 많다고 한다. 하지만 늘 한국 음식만을 찾아 먹다간 지갑이 금세 홀쭉해질 수 있어 한국마트에서 식재료를 구해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먹는 분들이 많다.

한국과 같은 듯 다른 싱가포르 학교생활

아침 출근길, 같은 콘도에 사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타이틀이 생각나는 곳이다.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한국 사람이 모여 산다. 그렇다 보니 방과후, 주말에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마주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학교에 도착하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며 일과를 시작한다. 수업을 마치면 방과후 학교 강사로 참여한다. 한국처럼 다양한 학원이 없어 선생님들의 특기를 살려 방과후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에서의 근무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의 근무환경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무실 환경이다. 수업이 없는 시간, 틈틈이 교실에서 업무를 보고 선생님들과 메신저로 소통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곳은 조금 다르다. 수업 준비와 업무를 하는 공간이 교무실이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교무실처럼 모든 선생님이 모여 있는 것이 낯설었다.

영어 선생님과 파트너를 이뤄 1학급을 맡아

한 학급에는 2명의 담임교사가 있다. 한국인 선생님, 영어 선생님 총 2명

3

> 떠나기 전에는
> 생각하지도,
> 기대하지도 못했던
> 그 이상의 것을
> 얻을 수
> 있을 것이다.

이 학급담임으로 아이들을 돌본다. 그래서 생활지도를 위해 파트너 선생님과 협의하고, 학급행사, 교실 환경꾸미기, 학생상담도 영어 선생님과 함께한다. 이곳에 근무하던 첫날,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는데 영어로 내용이 전달됐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다. 마치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느낌이었다. 교무실에서 파트너 선생님과 내일 수업에 대해 영어로 대화를 한 경험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여러 국가 사람들과 학교 교육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신선하다.

끈끈해지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육의 길 찾아

교무실이라는 한 공간에 함께 지내다 보니, 더욱 끈끈하고 친밀해졌다. 자연스레 학교 교육에 대한 건설적인 이야기도 오간다. 2020년 3월부터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에 근무했으니 코로나19 시대에 해외국제학교에 근무하게 됐다. 막막하게 다가왔던 코로나19 시대 교육,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됐다. 당시 초등교무실에 근무하던 선생님들과 '난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까'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함께하니 학년별·교과별로 수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화수분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의 시간과 결과물이 한국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도 정리했다. 이를 계기로 『블랜디드 러닝 수업』이라는 도서도 출간했다.

혹시 해외국제학교 교사에 생각이 있다면 가족의 동의를 구해 지원해봤으면 한다. 떠나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조금은 외롭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적응을 통해 새로움이 일상이 되면 또 다른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

1. 수업 준비와 업무를 하는 교무실에서.
2.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야경.
3.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의 야경.

10월 황금연휴
떠나자, 맛과 멋의 고장 거제·통영으로

글. 테크빌교육 홍보팀

다가오는 10월, 2번의 황금연휴가 찾아옵니다. 다들 여행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경남 거제와 통영은 어떨까요? 몽돌해변이 아름다운 거제의 명소와 맛집을 공유합니다. 거제도 떠나실 때 참고하세요.

거제도 가볼 만한 곳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은 잔디로 이뤄진 민둥산으로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지는 전망이 수려하다. 도장포 유람선선착장과 인접해 있어 해금강 관광과 함께 들리면 좋은 장소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람의 언덕을 상징하는 풍차 앞에서 사진도 꼭 찍어보자.

바람의 언덕

매미성

2003년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백순삼 씨가 자연재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홀로 쌓아 올린 벽이다. 설계 없이 흙과 돌로 쌓은 방벽이었으나 외관의 모습이 마치 성곽과도 비슷해 보인다는 반응이 많아지면서 거제도의 관광지가 됐다.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와 SNS에서 핫플로 떠올랐다.

매미성

몽돌해변

거제도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몽돌해변. 동글동글하고 윤이 나는 몽돌이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내는 소리가 기분을 좋게 한다. 모래알

몽돌해변

거제 보재기집

예이제게장백반

몰리힐스 카페

흩날리는 동해와 달리 몽돌 위를 자박자박 걸으며 바다 경관을 마주할 수 있다. 학동흑진주몽돌해변과 능소몽돌해변이 유명하며 한화 밸버디어리조트에서 묵는다면 리조트 앞에서 펼쳐지는 몽돌해변의 야경을 꼭 감상해 보자.

거제도 맛집(식당/디저트)은 여기

거제 보재기집

쌈을 싸 먹는 물회로 유명한 곳. 물에 담겨 나오는 일반적인 물회와 달리 기다란 그릇에 다양한 해산물이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도록 나온다. 같이 곁들어진 쌈 채소에 물회를 싸 먹다가 국물을 부어 우리가 잘 아는 물회처럼 먹을 수 있다. 멍게 향이 피어나는 멍게 비빔밥도 맛이 좋고 아이와 함께라면 생선구이를 주문해 같이 즐길 수 있다. 닻 모양의 소노캄 거제와 잔잔한 바다가 보이는 뷰는 덤이다.

예이제게장백반

싱싱한 게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곳. 이왕 방문했다면 꽃게장이 포함된 구성으로 주문해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어보자. 많이 짜지는 않지만 밥도둑이라는 명성답게 공기밥 추가를 부른다. 여러 지점이 있는데, 메뉴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고 싶다면 소노캄 거제 인근에 위치한 본점을 추천한다.

마소마레 & 몰리힐스 카페

오션뷰의 대형카페 마소마레와 몰리힐스. 두 군데 모두 베이커리 카페로 다양한 음료와 빵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탁 트인 바다뷰로 유명하며 아이들과도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 예쁜 디저트 카페 중 일부는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니 방문 전 확인해 보자.

내친김에 통영까지

통영은 거제도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다. 동피랑·서피랑의 아기자기한 골목길 구경과 함께 전망대에 올라 통영을 한 눈에 담아보자. 내려와서는 시장 구경을 하며 간식을 사먹으면서 당 충전을 해도 좋다. 통영 케이블카와 루지도 꼭 경험해 보자. 특히 루지는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인기 만점 코스! 통영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

퀴즈로 재밌게 초등 문해력을 마스터하라!

하루 한장 초성퀴즈 초등 속담쓰기
하루 한장 OX퀴즈 초등 맞춤법 쓰기

저자. 최경일, 김건구
출판사. 테크빌교육

기초학력 치트키, 어린이 문해력 & 어휘력
퀴즈로 아하! 쓰면서 쑥쑥!
하루 딱 한 장 깔깔 웃으며 따라가다 보면, 문해력이 쑥, 어휘력도 쑥!

● 4주에 완성하는 최경일 선생님의 속담쓰기 초성퀴즈

'ㄷ로 주고 ㅁ로 받는다', 'ㄱ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ㅂㅂ'. 완전 신나는 하루 한 장 초성퀴즈로 재밌게 초등 속담을 정복한다! 가장 쉽고 확실하게 어린이 문해력을 쑥 높여 주는, 하루 딱 한 장 초등속담 익힘책이 나왔다. 속담의 뜻과 활용 예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초성퀴즈로 기억까지 확실하게 잡아준다. 책으로 익힌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복습용 학습 영상도 수록해 교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고력이 자란다〉, 〈자존감이 자란다〉, 〈배려소통이 자란다〉로 이어지는 3종 시리즈를 모두 따라가 보자. 초성퀴즈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쑥쑥 자란다.

● 4주 완성 김건구 선생님의 맞춤법 쓰기 OX 퀴즈

'잃어버리다 vs 잊어버리다', '왠 vs 웬', '돼 vs 되'. 맞춤법은 규칙이다. 기억이 핵심이다! OX 퀴즈로 간질간질 긴장감을 높여 주의를 환기한 뒤 규칙을 설명하고, 음운을 맞춘 라임을 암기 꿀팁으로 아이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맞춤법 규칙이 아이들의 기억에 단번에 입력되도록 하는 책이다. 책으로 한 번, 영상으로 또 한 번 학습할 수 있도록 온·오프 학습 방법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맞춤법 공부의 학습효율을 최대화했다. 〈문해력이 자란다〉, 〈어휘력이 자란다〉 총 2종 시리즈를 모두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헷갈리던 맞춤법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는다.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진로찾기 로드맵

실전! 고교학점제 따라잡기

저자. 곽상경, 김수정, 김태현, 문미경, 오혜정
출판사. 테크빌교육

"고교학점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냥 학교에서 정해 주면 안 되나요?",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당장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럴 때 이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도 학부모도 막막한 고교학점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가장 쉽고 빠른 안내서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평가와 진로진학 상담까지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상담 Q&A도 수록,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학점제를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 보자.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나에게 맞는 학습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고등학교에 이르러 겨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진로 탐색과 관련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 책은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팁을 진로전담교사가 제공한다. 교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로찾기 활동지와 각종 심리검사,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진학 상담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설계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환경교육 9원리와 주제별 과목별 통합 환경활동 가이드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수업

저자. 홍세영
출판사. 테크빌교육

지구를 사랑하지만 조금은 막막한 선생님들을 위한, 환경수업 10년차 교사의 환경교육 안내서가 나왔다. 사실 이미 많은 교사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왠지 환경수업은 교과수업에 밀려 계속 소외당하고 만다. 무엇보다 환경수업을 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막하다.

지금 딱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환경수업을 10년 먼저 시작한 홍세영 선생님이 환경수업의 이유·원칙·방법·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는 책을 펴냈다. 사례는 창체시간과 전 과목 교과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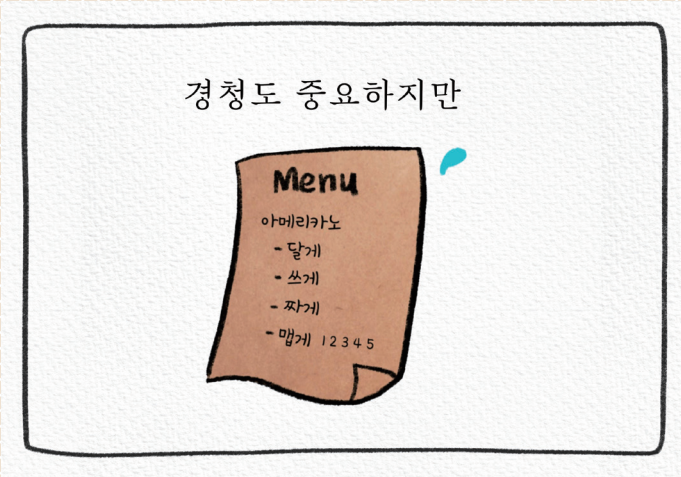
창체시간을 활용하려면 PART 4를, 교과시간을 활용하려면 PART 5를 따라가 보자. PART 4에는 6개 대표 환경 주제별 환경수업 가이드와 사례가 실려 있고, PART 5에는 과목별로 진행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환경활동의 다양한 예가 국어·사회·도덕·수학·과학·실과·체육·예술(음악미술)·영어 등 전 과목에 걸쳐 제시돼 있다. 여기저기서 수업사례를 엮은 자료집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환경수업의 기본원칙에도 관심을 갖자. 그래야 우리의 환경수업도 지속가능해지기 때문이다. PART 3에 제시된 '환경교육 기본원리 9'의 첫 번째 기본원리는 "가짜 친환경수업이 있다: 점검! 수업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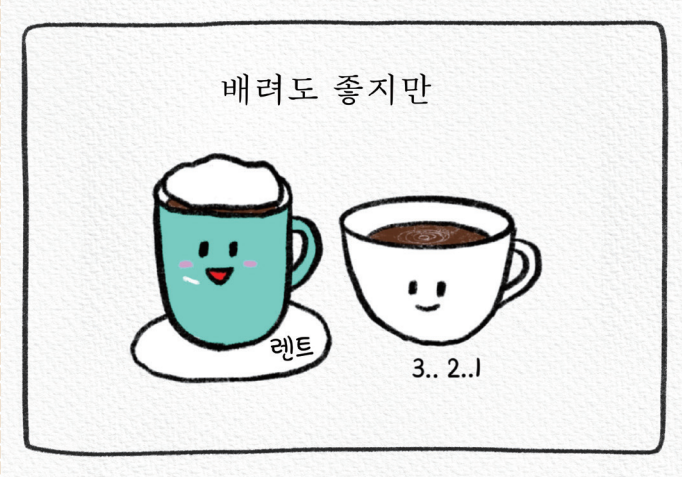
헉툰

Heartoon

그림. 이병용
대구 용계초등학교 선생님

2학기도 토닥토닥





SNS를 통해 일상의 마음을
그리는 초등교사 이병용입니다.
퇴근 후 인스타그램과 브런치에
헐툰(Heartoon)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쁜 학기 초
친숙한 커피 친구들과
가끔 수다도 떨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헐툰 (Heartoon)

티처몰

클릭 한번으로
1원까지 맞춰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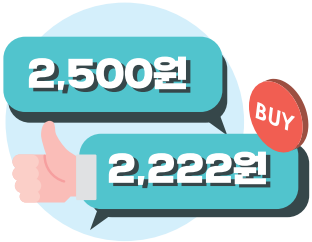
스마트 장바구니

지금 바로 티처몰로 오세요!

✔ 여러개의
My 장바구니
만들기 기능

다른 ID(행정실)로
✔ 결제 요청

✔ 동료 선생님에게
장바구니 공유 가능



✔ 클릭 한번으로
자동 예산 맞춤 가능

에듀파인 견적서 다운로드 | 편리한 세금 계산서 신청 |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까지! 물품 구매가 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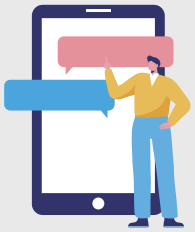
스마트 장바구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QR을 찍어주세요!

티처몰 1544-7783(내선2번) www.teachermall.kr

듣고 싶은 강의, 강사님이 있을 때
전학공/학교 연구 주제에 맞는 우리만의 맞춤 강의가 필요할 때
자율연수비 사용, 출석 확인 등 행정처리가 머리 아플 때

쌤찾자가 선생님의 강의 섭외를 해결해드립니다.

우리 학교 / 전학공 강의 섭외 서비스



강의 수락 전, 연락처 공유 없이도
문의 가능한 **비공개 1:1 대화창** 제공

자율연수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의비
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결제** 가능

오프라인 외부강의는 물론 **원거리 강사님**의
온라인 강의도 쌤동네에서 진행 가능

쌤찾자, 이렇게 편리해요

강사 섭외 단계별 진행사항 및
1:1대화 내용 실시간 알림톡 안내

자율연수비 행정 처리를 위한 가상계좌
입금 결제 가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공

온라인 강의 진행 시, 강의 참석자
티처빌연수원 자율연수 수료증 제공

다른 학교도 쌤찾자에서 외부강의 진행 중

학교 맞춤 강의는 쌤찾자!
우리 학교 전학공 대표자,
연구부장님에게 추천해 주세요.

EDU TECH FRONTIER
Tekville 테크빌교육(주)
티처빌연수원
쌤동네
클래스메이커
티처몰
즐거운학교
부모공감 키즈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구랑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